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국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Œ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 103:2)

다음 주일(19일), 주수 감사 주일 2·3부 가족 연합 예배

원래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엡 2:3).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를 향해 비취진 한 줄기의 빛, 예수 그리스도도는 그 어떠한 줄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진 이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골 3:16). 특별히 2006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행하신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매순간 변신하여 세상을 향해 걷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시 103:2). 죄인들을 향해 모든 죄와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골 2:7). 매일 매순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하겠지만, 특히 주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온 마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2·3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니 장년 예배에 익숙지 않은 어린이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과 부서에서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직자 가정은 되도록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영아·유아·유지부는 지체 예배합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집회)

마리아

카톨릭 교회의 서점에 가 보면 마리아를 기념하기 위한 성물들이 쌓여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를 생각하면 미국간에서 아기를 낳아 강보에 싸서 길 위에 누이는 열약한 환경에 처한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만민 중에서 이 초라한 여인이 천국의 왕을 그의 몸에 간직하였다. 참으로 소리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기적이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도록 인간의 역할을 감당해 준 마리아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소식을 전하러 보내진 가브리엘을 통해 비밀을 받게 된다. 이 가브리엘은 다윗에게 인류 역사의 전경을 그림처럼 보여주기도 했었다(단 9:22). 이같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할이 꼭 들어맞는다.

이 시골 처녀는 믿음과 담대함의 축복을 받은 자였다(눅 1:34). 침착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을 그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었다(눅 1:38).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는 곤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을 찬양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눅 1:46-48). 마리아에게는 자비로우며, 진지한 믿음, 또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고 또 그녀의 진정한 성품이 있다. 아기의 탄생 후에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를 찾아와 말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눅 2:19). 그러나 성경은 이 마음이 무엇을 지키어 간직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지 않는다. 마리아는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 한 여인으로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지나쳐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평범한 경험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경험은 이제 마리아의 마음 속에서 단 한마디의 표현으로 경이로움을 남겨 주었다. 마리아는 모세라 체험했던 그 경험을 기억할 수 있었다. 여호와와 영약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군중을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영광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다(출 34:29,30). 백성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출 34:35). 아마도 목자들 역시 울분책을 통해 모세의 경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침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음을 말해 주었고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 아마도 마리아는 천사와 목자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음 주일(19일), 2007년 단기선교 설명회

지난 2006년도의 선교는 주님께서 행하신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아니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성령님의 은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9천여 명이 넘는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 1:21).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했던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골 1:7,5).

2007년, 선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렐 1:8).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선교로 하나 되기 위한 단기선교 설명회가 모든 교역자와 장로를 대상으로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국내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땅 끝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쁨을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하라”(막 16:15).

일시 : 11월 19일(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

장소 : 베다니홀

대상 : 교역자 및 전도 전문

이 알려주지 오래 전부터 자신만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 신비로 말미암아 녹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한 이 아기는 기적 속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이다. 분명히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자신의 귀로 들었고 그의 마음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같은 육체를 통하여 그의 신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아기는 분명 마리아가 낳은 마리아의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 아기가 곧 천사가 일컫는 그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눅 1:35). 마리아가 그의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가 곧 마리아 자신이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이니사니 어찌 기적이 아니고 신비가 아니겠는가? 마리아는 이제 그의 팔로 온 세상의 소망을 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아기가 그리스도시며, 온 인류의 구주이신(눅 2:11).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라 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눅 1:32,33). 마리아는 이 소식과 함께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어기인데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이 아기를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에 놀랐을 것이다.

우리들도 마리아가 가진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 모두가 한 때는 참으로 열정했던 인간의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 마리아처럼 우리를 역시 은총의 신비가 인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절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본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던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은후처럼 지키며 양육하면서 기다렸다. 마음을 줄이며 가슴 아픈 그 날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눅 2:34,35).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 때에 마리아는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녀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 전에 마리아는 여호와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선포하였다(눅 1:48). 그러나 이 어두운 예루살렘 성 밖에 우뚝 서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녀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마리아는 소망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눈물로 슬피 울었을 것이다. 만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애송하던 것이 옳지 마리아의 아들뿐인 예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모든 소망의 굴절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아니다. 골고다 언덕에 깊은 어두움이 있었다면 그 부활의 아침, 생명의 찬란한 빛은 그 아침을 비추었다. 목자들의 머리 위에 흙주는 별을 어린 아기의 들장미처럼 만드니 아침의 찬란함은 참으로 영원성을 보여준다. 마침내 부활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하여졌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 이제 눈물로, 고통도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사 65:17-19).

THANKSGIVING

⁽¹⁾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²⁾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ne of His benefits; ⁽³⁾ Who pardon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⁴⁾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⁵⁾ Who satisfies your year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 (Psalm 103:1-5)

Last year, on Thanksgiving Sunday, our worship service focused on a Psalm of thanksgiving from Psalm 100:1-5. For those of you who were not here or do not remember, the message was about truly appreciating God and His amazing grace. This thanksgiving psalm reminded us that the whole world needs to "shout joyfully" to the Lord (v. 1), and we in particular need to appreciate the Lord for living in this country, where we can serve Him freely and sing joyfully together in appreciation for His love through fellowship with other believers. It reminded us to appreciate the Lord for this beautiful church, where we can hear the gospel and share it with the world because Jesus is our Savior. For today's thanksgiving message, our worship service will give attention to David's thanksgiving song, which begins,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v. 1). David experienced God's grace. He was a shepherd who became the king of Israel. He went from sitting on rocks to sitting on a throne, from living outdoors with sheep to living inside a palace. His whole being was able to thank God for His blessings because his experiences centered on God's grace, not self-achievement or chance.

David sings,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ne of His benefits" (v. 2). He is reminding himself never to overlook or stop thinking about the advantages of God's grace. He is saying that the grace of God is of the most benefit, not earthly riches. Indeed, the power in God's grace cannot compare to anything. The grace of God that was upon him was the same grace that was upon Moses, who was born as a slave, but then became a prince of Egypt and later a leader and prophet to God's people. God's grace came to a few fishermen by the Sea of Galilee like Simon and Andrew. And Jesus made them as His disciples. Jesus touched Mary Magdalene, who had seven demons, and changed her into a born again Christian who was the first to proclaim His resurrection. Listen, my dear friends, nothing compares to the benefits of God's grace. Wake-up and stop spending your precious time thinking about money, power, and fame. Stop placing your spouse, your children, your work or schooling above Jesus. God's grace is the lifting power, the marvel of love, "From sinking sand He lifted me, with tender hand He lifted me, from shades of night to plains of light, O praise His name, He lifted me" (Hymn: In Loving Kindness Jesus Came). Is God's grace upon you? Can you bless the Lord and remember His benefits?

David's song of thanksgiving continues, "Who pardon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v. 3). These benefits of God's grace are beyond measure. He forgives spontaneously. Only He can forgive us our sins. Do you realize how great a blessing that is? If you really believe it, then you can really go to His kingdom. Do you believe in His kingdom? I do not think many Christians believe in His kingdom because those who really believe do not focus on earthly things, and most of today's Christians exclusively think about earthly things. The

world wraps them up. Real believers understand that there is no comparison to God's grace. It is primary in their lives. Not only does the Lord forgive your sins, but He also heals your spiritual sickness. When you read the Bible and dwell on the Word of God, your heart has peace. Exodus 15:26 says, "...If you will give earnest heed to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sight, and give ear to His commandments, and keep all His statutes, I will put none of the diseases on you which I have put on the Egyptians; for I, the Lord, am your healer." Jesus pardons sins and heals diseases. He healed the royal official's son (Jn. 4:46-54), the invalid at Bethesda (Jn. 5:1-9), and a man blind from birth (Jn. 9:1-41). He calls now,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David sing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v. 4). You cannot find these benefits of God's grace anywhere else. They come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e Lord really saves your life. No one or nothing can save you from hell, only Jesus Christ. You should appreciate Him for that. In this world today, many stupid people think they can save themselves. Their pride tells them that they can handle whatever comes their way. In reality, they are children of the devil. We are all sinners in need of salvation. God promised us a Messiah because of our sinful nature. He gave us His Son, who came and died on the cross for our salvation, but people still believe in themselves.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David sings out, "Who satisfies your year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 (v. 5). The Lord gives us all the blessings. He satisfies your heart with good things, making your spirit soar with energy. My dear friends, if you stick with Him, all kinds of blessings will come your way. Everything you need, He will provide with His hand. He has placed eternal life in front of you with His nailed hand. He has crowned you with His wounded hand. All that He offers is worth more than gold or treasures untold.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how much you owe Jesus Christ, so that you can wholeheartedly give thanks to Him for His benefits.

When you think about God's grace, you realize that you have nothing in which to complain. You must think about the grace of God, not wicked things. Today is for thanksgiving. Please let your thanksgiving center on His grace, and not earthly things. Let the grace of God within you give thanks that He paid for your sin. You owe Him an unaccountable measure. He has given you holiness. He died for your death. He gave you new life, eternal life. He cleansed your dirty heart and made it a loving heart. He took your hell and gave you heaven. Let your soul sing praises to the Lord, just as David sung,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v. 1). Please remember His benefits over all. Amen. 

다을 주일 설교

감사

- “내 영혼아 여호와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도다

(시편 103:1~5)



김성원 목사

작년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는 감사의 시편 100:1~5를 통해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감사의 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즐거이 외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시 100:1). 특히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함께 즐겁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난 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드린 감사의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1절).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피부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왕좌에 앉게 되었고, 양떼들과 바깥에서 지내다가 왕궁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자신의 업적이나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2절). 그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부어주신 모든 은택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가장 큰 은택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담겨있는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후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시몬이나 안드레 같은 몇몇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어루만지셨고, 그녀를 거둔다게 하였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비길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 일 혹은 학업이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은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시며, 놀라운 사랑 그 자체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주님은 나를 일으키셨네, 부드러운 손길로 주님은 나를 붙들었네. 어둠의 그늘에서 빛의 평원으로,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네”(찬송: 은혜하신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자신이 받은 은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의 감사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내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3절). 이 은택이야말로 참으로 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원하신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경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온통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 버렸습니다. 세상에 의해 삼켜버린 바 된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한 신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총에 비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총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 또한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26에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생기지 아니하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4:46~54), 베데스다 연못의 삼십 팔년 된 병자(요 5:1~9)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요 9:1~41)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노래합니다.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4절). 이러한 은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마귀의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원을 만족케 하사

다윗은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니도다”(5절). 주님은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 모든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그의 손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못 박하신 손으로 여러분 머리엔 영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주님은 성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엔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아무런 값도 없이나 보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제발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만 믿는다는 은택을 믿게 되셨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은택에 대해 온 마음을 다 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감사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할 때 불평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자녀들이여! 약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날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죄 값이 모두 치리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1절).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타협

(출 10:24~27)

애굽왕 바로는 400년간 노예로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 때부터 바로는 이스라엘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악한 마귀는 타협을 유도한다. 악한 마귀가 어떠한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자.

가라. 그러나 가지 말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 애굽의 바로는 매우 놀랐으며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타협의 시작이었다. 하나님의 능동하신 능력 앞에 놀란 바로는 회개하였지만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니었다. 현실의 상황을 잠깐 도파하려는 속심수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가라"고 허락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의 제사를 허락한 것뿐이었다(출 8:25).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러나 실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들이다. 바알, 아세라, 아스토틀 등 이 땅에서의 행보를 보증하는 신을 섬기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래야만 세상의 가치와 충돌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하며 살 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요 15:18~20).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참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요 17:14).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신자에게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요 17:16,17). 바로가 제정한 타협에 모세는 단호히 거절하였다(출 8:26).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앞에 타협하며 하나님을 외적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타협의 자리는 없다.

가라. 그러나 너무 가지 말라 모세의 거절 앞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출 8:28).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더욱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였으며, 그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다. 심지어 바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비면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출 10:16,17)고 회개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나 이것은 "적당히 하라"는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와 순종이다. 세상에 합하여 죽음을 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절대로 이해하거나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이성적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 주장을 버리고

심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협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이 세대를 본받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심자가의 보화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기에만 초점을 맞추자(롬 12:1,2).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때 타협의 자리는 없다.

가라. 그러나 가족은 남기라 바로의 또 다른 타협안은 남자들은 보내주겠지만 가족은 남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출 10:10,11).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불모로 하여 타협을 요구한다. 사랑스러운 가족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와 함께 살기겠노라"(수 2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미혹한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추리,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의 샘물,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고 불평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매순간 속이며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 마귀는 물질들을 활용한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요 2:28). 우리의 중요로운 삶을 약속하신 세상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타협하는 마귀 앞에 우리의 선택은 좁은 길이 되어야 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때 비록 소중한 가족일지라도 타협의 자리는 없다.

가라. 그러나 소유는 여기에 남겨 두라 이제 바로는 마지막 타협을 시도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내주되 소유는 남겨 두라는 것이었다(출 10:24,27).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은 우리들이 넘기 힘든 것이다. 왜냐하면 소유가 없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비참해질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악한 마귀는 궁중 권세 잡는 자이다. 일시적이지만 이 땅의 통치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 20:28).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워 않게 된다(골 1:21,27).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자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골 6:14).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롬 6:22).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었던 세상의 넓은 길에서 돌이켜 좁고 험한 고난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 넓은 길에 행보를 위한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열린 심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천국을 소망할 때 타협의 자리는 없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심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세상의 가치에 눌러 타협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를 깨닫게 부르고 계신 심자가의 예수님을 보라! 타협의 함정은 매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가 될 때 타협의 함정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분명히 대답을 주신다. 세상의 줄을 놓고 죽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심자가를 지게 하소서. 타협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내가 따라 마라"와 같이 가려 배"(산 360장).

2006년 제3차 정치기 훈련으로 받은 은혜

✦ 나를 둘러싸고 온 거울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다. 이처럼 불안과 의심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반의 징조, 인자의 오심(마태복음 24장)을 떠올린다. "나는 과연 그날 구원받은 참된 종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가?" 심령이 갈급할 때 정치기 훈련으로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며 단련케 하고자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린다. 제3차 정치기 훈련의 말씀은 나의 심령을 들어다보는 거울이었다. 우리는 자주 똑같은 잘못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반복하여 똑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짜증을 내곤 한다. "그것 하나 절단 못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그런데 이런 행동마저 나의 자존심이고, 교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일상 생활 중에서 분명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때의 상황이나 핑계거리를 찾아 변명으로 안위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상황에서는 주님에게도 이해할 실 게아! 하면서 주어진 책임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은 아닌지? 가슴 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부끄러움을 한 장씩 펼쳐보이는 회개의 시간이었다.

주님! 세상적으로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나의 부끄러움을 나와 또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심자로 가져가오니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남은(원사, 10교구)

✦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정치기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풀을 때 이 죄인의 기도를 들고 나 자신을 철저히 심자가 앞에 내려 놓는 회개의 시간으로 인도하셨다. 주재할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영적인 나뭇에 빠져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은 하면서도 깨어 있지 못 하고 입술의 고백만 했던 나.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 했던 나. 좀더 많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 했던 나. 나에게 주어진 심자가를 지기 싫어했던 나... 기대하던 천국 잔치날, 잔치에서 섰꼬되는 강한 때를지를 통하여 내 자신의 수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 내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 더 큰 은혜가 감동처럼 내게 밀려왔다.

이런 정치기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랑하라(신 6:5). 이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기원의 정치기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이명재(집사, 9교구)

제3차 청지기 훈련

2006년 제3차 청지기 훈련으로 받은 은혜

구원에 이르는 수치 (시 86:13)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더욱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실수자를 지고...

✧ 나는 이미 수치스런 죄인이었다!

"구원에 이르는 수치라고? 수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이지?" '수치'라는 단어의 뜻도 정확히 모른 채 청지기 훈련에 참석하곤 하였다. 그렇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태도가 그야말로 불람학생 같았다. 하지만 인애하신 주님께서는 강도를 구원하셨던 그 사람으로 불람학생을 또 다시 사랑해 주셨다. '수치'의 뜻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수치스런 죄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수치가 실지만은 않았다. 내가 바로 수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약식이 되었다.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수치스럽게 서더라도, 아니 이미 죄인인 나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이름을 들먹였던가? 나의 생각, 나의 도덕,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이라든 나의 공로도 괜찮지 않느냐며 주님 앞에 뻔뻔한 나의 모습, 수치 받기 거부했던 완악한 나의 모습이 있었다. 이제 나는 수치 받기 원한다.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진실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구원과 감사와 기쁨이 된다. 내 삶이 이제 매순간 실수자를 통한 회개로 나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강진규(성도, 14교구)

✧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협겹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옮겨진 재물, 미래의 불안, 생명의 위협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수치를 내려 놓으려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스스로의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나의 수치를 내려 놓을 때 온전한 것이 된다는 약속을 알 수 있었다. 분명해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을, 또 내려 놓음의 길은 실수자의 길이고, 내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로서 즉 세상의 수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내려 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텅 빈 마음과 가난한 마음 속에 주님의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가! 내 속에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을 통해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것이 아닌가! 값 없이 구원의 은사를 주셨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수치를 내려 놓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홍명희(집사, 18교구)

✧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을 변화시킨 은혜

교회의 집사로서 교사로 봉사하며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망각하였고 거룩한 사람처럼 지내왔던 지난 날을 깨달았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수치를 보았고, 수많은 절교와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수치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리스도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수치를 보았고, 주님 앞에 합을 때려다, 고인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수

많은 서약을 했지만 그 서약들을 나의 필요에 따라 켄 나를 보면서 주님은 보시기에 역겹고 토할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에 감사가 넘쳤다.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참혹한 수치를 보게 되었고 그 수치를 통해서 주님이 받아 주시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수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청지기가 되길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찬송과 신령한 예배를 올려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봉사를 행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의 이웃들과 가족에게 증거하는 청지기가 되길 기도한다.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을 인도하여 온전한 자로 변화시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다.

성민(집사, 청년부2)

✧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지요!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지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나의 두 뺨을 적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형용할 수 없어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나는 입술로만 거룩을 말하고 교활하게 행동한 교만한 자입니다. 늘 보기 흉게 세상과 타협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얹어놓고 상의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맹세하고 또 스스로 약속을 깨뜨린 것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집니다.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 다시금 나의 수치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바꾸어 나가기로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참 신자가 되어 자녀에게 아름다운 선임을 물려주기 위해 항상 무릎으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꽃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강미(집사, 8교구)

✧ 가장 큰 은총

주님 앞에서는 성자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결함을 입었다고 목을 끈 채 세워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은 의인일지라도 주를 사랑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때면 준비해 온 청지기 훈련을 접할 때마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주님은 내게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내 어리석음으로 내가 나 된 것으로 여기고 교만에 쌓여 부러울 것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부끄러운 나의 수치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였고 새벽 기도 중 주께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루를 새로이 시작할 때 그동안 못 했던 전도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하고 연합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나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고도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나의 부끄러운 수치임을 새롭게 청지기 훈련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큰 은총입니다.

박경희(집사, 1교구)



눈물로 전한 복음

동네마다 공안의 빨간 깃발이 높이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약간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며,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 믿겠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고" 예수 사람을 찬양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 줄 때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이별을 하였습시다.

혹시 선교를 하여 공안에게 잡혀갈까 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집에선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전도지를 달라고 진정으로 애원하던 이의 소진한 눈과 마음을 읽으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전도지를 주기도 하였습시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 다른 나라처럼 학교나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소리 높여 전도하고 찬양을 하지는 못 했지만 공안의 눈을 가리키고 끝까지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사를 드리며 현재의 영혼들이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으며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길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조숙경(집사, 7교구)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저는 이번 선교를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간절히 더 원하셨습니다. 그 일이 더 시급했기에 주님의 뜻은 저와 달랐습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도저히 선교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교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주장에 주시고 간절하셨기에 어머니의 소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팀은 8월 9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에게 마음껏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곽도경(집사, 1교구)

회개의 눈물로 배개를 적시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언단도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힘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막막하여 움직일 수 없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배개를 적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겼습시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솟아났습시다.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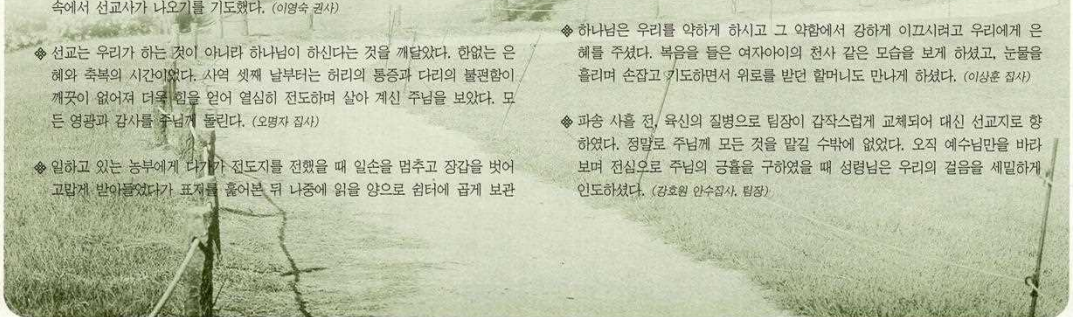
김종기(안수집사, 18교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4교구 4지역

- ◆ 주님은 경찰을 통해 우리 차를 막으셨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곳은 문화회관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 동안 쌓은 장기를 발표하며 관람하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한 사역이었다. (허은숙 권사)
- ◆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며 참 생명이심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눈물을 흘리며 신안 고백을 하는 그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춘희 집사)
- ◆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할머니와 작은 입술을 달작거리며 기도문을 읽던 어린 영혼들과 눈을 반짝이며 교를 흘리며 복음을 들은 얼굴을 보며 이들 속에서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했다. (이영숙 권사)
- ◆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 사역 셋째 날부터는 하리의 통증과 다리의 불편함이 깨끗이 없어져 더욱 힘을 얻어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 계신 주님을 보았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린다. (오병자 집사)
- ◆ 입하고 있는 능부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전했을 때 일손을 멈추고 장갑을 벗어 고맙게 받아들였다가 표지를 흘려버린 뒤 나중에 입을 양으로 헹거에 곁에 보관

- 하는 모습을 보며 정성을 담은 전도지 한 장의 소중함을 느꼈다. (김두현 집사)
- ◆ 경찰이 간판 교체 작업을 하느라 우리가 탄 차량을 길 한복판에 세워 두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란 생각이 들자 모두 내려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줍음을 한 여자아이의 영접기도 때 아멘 소리로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하고는 우리가 준 전도지와 책받침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어린 영혼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과 그 마을의 영혼들을 구원하길 간절히 기도하였다. (김종옥 집사)
- ◆ 은유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선교팀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를 들고 앉아서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 9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오병자 집사)
- ◆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그 약함에서 강하게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복음을 듣는 여자아이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보게 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손잡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던 할머니도 만나게 하셨다. (이창훈 집사)
- ◆ 파송 사후 전, 육신의 질병으로 팀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어 대신 선교지로 향하였다.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강호철 안수집사, 팀장)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생명의 빛으로!



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성혁)

♥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고 불행하며 살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든 항상 평안함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평안해졌습니다. (이재경)

♥ 주님은 전능하시고 인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지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배려, 친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어 늘 든든합니다. (권상득)

♥ 병원에서 만난 친구의 전도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나시며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슬픔과 고독이 더욱 부러워졌습니다. (김소자)

♥ 어려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는데 이종사촌 동생의 전도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김소자)

♥ 딸과 사위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여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많이 내었지만 신앙 생활을 통해 화를 덜 내고 온순하게 되었습니다. (김옥영)

♥ 4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라는 딸의 권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제를 인도하셨고, 건 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간병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큰 힘과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노영자)

♥ 외삼촌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 생활이 예전보다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서인지 차분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기적이기보다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 미워하기보다는 나를 뒤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살게 하소서. (이재연)

♥ 주일에 맞춰 일어나 예배를 준비하면 제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교회라는 태두리 안에서 생활하면 제 자신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종환)

♥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많은 대화를 나누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권순선)

♥ 한 집안사의 인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게 어려운 일이 닥치 때마다 나를 위로하기고 했는데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함으로써 제가 잘못된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조금씩 풀리

♥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이시며 은혜를 풍만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 행복합니다. 은혜 중만한 가운데 하루하루가 어두운 터널에서 빛 속으로 향하며 가고 있습니다. (서정희)

♥ 남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드나신 분이여 내가 유망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신앙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걱정, 고민이 평소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싸움도 많이 줄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김지혜)

♥ 나는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며, 주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승주)

♥ 큰집 식구들이 모두 교회 다니는데 저는 늦게나마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영자)

♥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고슴도치 같아서 좋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슬픔을 접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주 즐겁고 싶습니다. (이덕우)

(정리 : 편집실)

주 안의 아름다운 소망

신록이 제 임무를 다하고
오색 되어 외제 색깔 자랑찬치 배꽃이들 때
라일락 꽃잎만큼이나 춤추기 발디딤 들었어 기뻐 댕글 댕글의 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내 속, 홀로 숨긴 불의를 쏟아내어 다짐게 하는 목사님의 강력한 내적 직언에
영드려 두 손 들어 두 눈 뜨게 된 고고
속내를 적도록도 성령 충만한 날이었네.

구원에 이르는 수치를 느껴라!
자존심, 교만, 부도덕, 방종, 부정, 욕망, 이기심, 의무 불이행...
은 아수만큼이나 많았던 부끄러운 내 반쪽을
단번에 주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게 하는 결단의 순간으로
새 영 새 각오를 받으셨으니 주님은 기뻐하셨으리라!
주의 십자가의 못 박히신 것 외에 일체의 어느 것도 잡지 않기로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을 아름다운 도도함으로 오직 주 안에 살게 각인시켜 인도하셨네.

간절합니다! 불의한 저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거룩한 희생! 십자가의 보혈은 목화솜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모두를 오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
그 어떤 것으로도 용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 되어 역사하신 죄인들을 변화시킨 은총의 밤!
주의 말씀 매일 읽어 그 비밀스런 사랑 치치하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 쏟아져 나와 영광 찬미하는 자 되네.

수정 같이 맑고 투명한 주의 자녀 되어
그 날! 흰 세마포 같이 입고 거룩한 성에서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무리 되고픈 소망 그 예루살렘 성
그 곳서 아름다운 주의 빛난 백성 되고픈 나 간절하네.

이영매(성도, 3교구)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24	김정연	2	청년2부	김구식(6)
2425	홍보비	19	외선부	홍필보(18)
2426	송경희	1	장년1부	곽옥영(17)
2427	예탁기	19	외선부	
2428	박찬철	1	장년1부	황경분(1)
2429	유현철	1	교역자	
2430	유영희	14	장년2부	최미자(7)
2431	유순일	17	장년2부	
2432	프영	13	외선부	나승순(13)
2433	류홍은	1	외선부	
2434	김도희	19	대학부	이달영(15)
2435	김필성	19	청년2부	
2436	김신숙	6	장년1부	이진규(6)
2437	이준선	1	장년3부	김정혜(1)
2438	김희희	12	장년3부	박성철(9)
2439	윤상철	12	장년3부	박성철(9)
2440	김희리	19	고등부	장연희(15)
2441	강진숙	13	장년2부	강성자(14)
2442	이수영	19	대학부	권정자(2)
2443	이소라	19	대학부	권정자(2)
2444	이희준	1	교역자	
2445	최현미	1	청년1부	
2446	김민정	19	청년1부	
2447	장종대	19	청년1부	
2448	알태선	1	청년2부	
2449	윤신애	1	청년2부	
2450	빈	19	외선부	박도세(19)
2451	김민선	1	장년2부	이보신(1)
2452	강종주	1	장년1부	이보신(1)
2453	김도희	19	청년1부	유복심(2)
2454	이훈근	19	청년1부	홍명희(18)
2455	신	19	외선부	김석영(7)
2456	후장	19	외선부	이유주(4)
2457	하이	19	외선부	김지연(7)
2458	신	19	외선부	나기태(7)
2459	이경아	19	고등부	장연희(15)
2460	이신민	19	대학부	홍성애(15)
2461	맹성범	1	청년1부	송호준(19)
2462	채홍식	16	청년2부	

※ 중환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층로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모임

1. 2007년 신년 전도회장 모임
일시: 12월(오늘) 15시 10분
장소: 교육관 401호

별세

1. 이경남 씨(경성중 집사의 모친,
도제대 성도의 장모, 9교구 월계1
구역)/5일 별세, 7일 장례
2. 윤달동 성도(경향자 성도의 남편,
윤해경 성도의 부친, 윤화숙 권사
의 동생, 17교구 정동구역, 8교구,
9교구)/6일 별세, 8일 장례
3. 심의길 성도(산촌회 집사의 모친,
김석재 집사의 장모, 4교구 가든1
구역)/7일 별세, 9일 장례

결혼

1. 김성진 군(김종석 집사, 강민경

집사의 아들, 18교구)과 임현주
양(임용순 성도, 박숙자 성도의
딸, 타고교회)/18일(토) 12:00 분당
리도웨딩홀 2층, 장자역 2번 출구

2. 주진석 군(주원영 성도, 김용영
집사의 아들, 18교구)과 오유미
양(오상환 형제, 김현임 씨의 딸)/
18일(토) 16:30 잠원동 강남웨딩
문화원 6층 휘가홀

“안 영논을 주님의 품으로”
(총회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시: 금주(15일), 수요일 예배 후
대상: 전 교인
(교구별 예전도의 중심)
진행: ① 수요일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교회주변 전도

◆교구 일꾼 총회

일시: 11월 12일(오늘), 14:00~14:50
장소: 본 당
*교구 모임은 총회로 대신합니다.

◆감사위원회 회가 감사 실시 안내

감사 대상: ① 제1·2·3교구위원회 소속 모든 교회학교
② 전양위원회 소속 모든 찬양대
감사 기간: 11월 5일(주일)~11월 19일(다을 주일)
대상 기간: 2006년도 감사 장소: 감사위원회실
준비 서류: 금전출납부, 원장, 시산표,
예산 창원서(2006년 10월말까지)

◆매배설 변경 안내

탁아부: 선교관 1층
영아부: 교육관 110호
*이름에 적은 양도가 바랍니다.

교회 직원 모집

- 1.모임담당 율한 엔지니어(에) 전교구 우대
- 2.자 격 세 교인 (81년 이후 출생자)
- 3.재능/서투 자필 이력서·주변동료 추천
- 4.서류제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203)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3 (월)	14 (화)	15 (수)	16 (목)	17 (금)	18 (토)	19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승권	윤수일/최경자	황진철/김연태	유계진/김병권	전성원/김종홍	김철규/강덕필	양재웅/최문실

예배담당 안내 (11/15-11/19)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11/15	수요 I	여리고를 지나서야 (눅 18:31-43) 김성관 목사	김준호	한국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호산나 찬양대)
11/15	수요 II	구원의 주님 (시 51:1-19) 김철규 목사	유계진	남양진	예수 십자가에 홀린 피로써 (실로암 찬양대)
11/17	금요일회	김성관 목사	안치원		충현 장로중앙당 / 14교구
11/19	주일 I	감 사 사 (시 103:1-5) 정종신 목사	전성원	전학대	예배 전 찬양
11/19	주일 II	감 사 사 (시 103:1-5) 김성관 목사	윤수일	최준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외 / 조동부 중주
11/19	주일 III	감 사 사 (시 103:1-5) 김성관 목사	유계진	최종환	감사하는 성도여 외 / 피아노 트리오
11/19	주일 IV	감 사 사 (시 103:1-5) 나영명 목사	이희석	김진국	묘한 세상 주시고 외 / 아련 오케스트라
11/19	주일 V	감 사 사 (시 103:1-5) 안창덕 목사	최종철	정정길	이 세상엔 고귀한 열매 외 / 최진복, 박재성, 김성수 (현관교회 성가대)
11/19	주일찬양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8) 여국근 목사	강 훈	김재호	조동부 중주 / 뱀달 남성중창단 / 호산나 찬양대

11월 총현 기도의 창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풍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총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온 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자)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교회 옹호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수해,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화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회	저녁 7:00	금요일회 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흥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등,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부흥 예배는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진행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7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담 부	오후 12:15	잠 밀 리 홀
사 담 부	오전 11:00	복자전 지하1층
예배마루	오전 9:00(목)~오전 1:00(금)	제2교육관 1층
타 카 부	(주) 오후 8:30~오후 1:00 (금) 저녁 6:30~제2교육관 1층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전 12:15	대 바 나 홀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전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국내외국전교부	오전 11:00	아 덴 홀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부목사
김의철 김준호 노광현 이병학 이 훈	■ 부목사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남순우 김준우 최무진 이창호 차신숙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김정남 이종식 김부원 전홍문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이정우 김나운 안광순 김양주 김완기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전원철 이형우 안원철 황나원 김규필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최유민 김계원 박덕영 이태식 정태부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박종규 권영호 조종환 배순식 김영달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이시호 최희주 노영환 박진규 정정길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신상수 고재승 강철형 김영은 이달숙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장정환 김준수 함원주 윤선진 정현민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안석현 김진국 김진국 김준선 임창식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김준선 김진국 김진국 김준선 김준수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전은배 석승식 구재현 송복자 최화은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신상진 유재복 박상대 김구진 신상현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정장수 엄복수 이상식 오순도 양기주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
김태식 유복수	정현민 박인기 류병태 여국근